무소속 강세 지역…민주, 탈환 여부 주목

순천시장

오하근, 반 민주 정서 극복 관건
노관규, 공약 내세워 지지 호소
이영준, 양강 구도 속 선전 관심

순천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모든 선거 때마다 '충격적' 선택으로 정치권을 긴장시키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민주당에는 특히 그렇다. 국회의원 선거로 보면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때 통합진보당(김선동)을 밀어주며 민주통합당(노관규)에게 패배를 안긴 곳이다. 2014년 7월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서갑원) 대신, 새누리당(이정현)에게 처음 문을 열어준 곳이기도 하다. 2016년 20대 총선도 더불어민주당(노관규)이 아닌 새누리당(이정현)에 힘을 실어줬다.

지방선거도 비슷하다. 2010년 치러진 제 5회 지방선거 때는 무소속(노관규) 후보를 밀었고, 2012년 4월 재·보궐 선거도 무소속(조충훈) 후보에게 승리를 안겼던 곳이다. 2014년 제 6회 지방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허석) 대신, 무소속(조충훈) 후보를 찍었다. 10년 넘게 민주당 후보에게 지역을 맡기지 않은 곳이 순천인 셈이다. 최근 시장 후보들에 대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인지 25일 찾은 순천시 연향동 동부상설시장과 신대지구 롯데마트 인근에서 만난 유권자들 분위기도 민주당에 '고분고분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동부상설시장 앞에서 만난 유권자는 "꽃기만 하면 당선이라는 오만함을 버려야할 것"이라며 "그게 공정과 원칙을 강조해온 경선 맞냐"고 물었다.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가 최근 민주당 공천과 관련, "일당 독재와 같은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가 계속되는 한 지역정치의 민주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공감하며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활기찬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촉구한다"고 내놓은 성명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시민들 팽개치고 자기 이익 쫓아 간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있겠어"라는 말도 들렸다.

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오하근 후보와 무소속 노관규 후보, 무소속 이영준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지지만 사실상 오 후보와 노 후보간 양자 대결로 보고 있는 게 지역민 정서다.

오 후보는 청년, 중도매인, 시니어노조 등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다며 연일 홍보자료를 내며 지역 전체로 확산해나가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유독 반 (反) 민주당 정서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노관규 후보도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뇌심혈관센터 유치 등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노 후보는 순천지역에서 공천잡음이 일면서 지지의 추이가 자신에게 기울고 있다는 판단이다. 노 후보는 정치적 도덕적 자질과 능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양강 구도 속에서 사계절 관광도시 구축, 스카이큐브 노선 연장 등을 외치고 있는 이영준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지도 순천시장 선거를 보는 재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오하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노관규 무소속 후보가 유세차에서 시민과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영준 무소속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를 건네고 있다.

'민주당 텃밭'은 옛말…민주·무소속 3파전

장흥군수

김성, 인지도·조직력 튼튼
정종순, 현직 프리미엄 장점
사순문, 새 인물론 표밭 다져

장흥군수는 민선1기에서 7기(보궐선거 포함)까지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각각 4차례씩 당선된 지역이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등 3명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6명의 경선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받아 본선 경쟁에 뛰어든 김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년 이상의 화려한 정치경력을 바탕으로 "다시 어머니품으로", "다시 김성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주당 군수 탈환을 노리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80년대 말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도의원(2선)과 민선 6기 군수까지 30년 이상을 중앙과 지역정치를 아우르고, 튼튼한 조직력과 바탕 위에 쌓은 높은 인지도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장흥지역은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치러지는 역대 선거에서 남부 표심이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점에서, 김 후보는 남부 연고지를 부각시키며 안양, 용산, 관산, 대덕, 회진지역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김 후보가 민선 6기를 이끌던 과정에서 불거진 측근 비리 잡음 등이 얼마나 판세에 영향을 미칠 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김 후보는 일단 민선 6기 군정경험을 거울삼아 5대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으로 2026년까지 인구 4만명 유지, 국비 예산 확보로 7000억원 시대, 역사,문화,관광자원 발굴로 관광객 500만명 시대 등이 대표 공약이다.

무소속 정종순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다.

정 후보 지지기반은 2005년 농협 중앙회 장흥군 지부장 시절부터 맺은 회원농협 조합원들과 부녀회원들로, 끈끈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정 후보는 2018년 밑바닥 민심을 얻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저력을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다.

정 후보는 임기 4년동안 공무원 인사에서 정직한 군수라고 자평하고 있다.

정 후보는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군민의 눈치를 의식하며 일하겠다"며 "재선된다면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서민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체육계 인재양성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스포츠메카' 정착, 전남 소방안전 중심지 구축, 탐진강 30리길 조성으로 탐진강과 장흥댐 관광 명소화, 문림의향 문화예술 메카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무소속 사순문 후보는 전·현직 군수 대신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지역 여론을 표로 연결 시키겠다며 표밭을 누비고 있다.

사 후보는 지난 8년간 장흥군정이 측근 비리 등으로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점 등을 거론하며 중앙 인맥을 발판으로 앞서가는 청렴 행정을 만들고 군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사 후보는 공약으로 ▲문화관광산업 진흥으로 유동인구 300만명 시대 달성 ▲중앙로 청춘거리로 조성 ▲청년수당 월 30만원 지급 ▲청년임대주택 300세대 마련 ▲어르신 건강을 위해 인공지능(AI) 돌봄 시스템 구축 등을 내걸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김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구 곳곳을 누비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은 무소속 정종순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무소속 사순문 후보가 새로운 인물론을 강조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80억, 호텔/ 무인텔 매매 교환

•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내
• 대지 2980평, 건물 1270평, 계획관리
• 건물 3동, 객실 52개, 관광호텔 허가 有
• 요양(병)원, 콘도, 리조트, 연수원 등 업종 변경가
• 법인체 양도양수가, 수도권 토지와 교환 가

주인 직거래. 010-3605-5000

22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주)오천경매. 010-3605-5000